



구미 선진국의 유서깊은 대학의 출판부서는 굳이 건학이념과 이윤 동기의 이분법에 연연할 만큼, 역사적 '그릇'이나 역량이 작지 않다는 게 현지 사정에 밝은 사람들의 평가다.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관록에 힘입어 학문적·실용적 경쟁력을 더불어 갖추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선진국의 대학출판부는 :

도쿄대 출판부, 「원론적 학문 기능에 충실」
예일대 출판부, 세계적 베스트셀러 줄지어 출간
캠브리지·옥스퍼드 출판부, 「글로벌 출판 메이저」
프랑스 PUF 「학문과 경영을 마주시키는 대안」으로 주목할만
온라인과 역사로 학문적·실용적 경쟁력

막강한 재량권 지닌 캠브리지 출판홍보부, '지적 소통의 창구'

영국의 옥스퍼드·캠브리지대, 프랑스의 파리대학교 등은 그 중 대표적인 경우다. 캠브리지대학 교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부총장의 직속 부서로 출판홍보부를 따로 두고 다양한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출판홍보부는 이 대학의 대내외적 지적 소통의 관문이자 창구”라는 게 그곳 사정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표현이다. 말 그대로 출판홍보부는 대학 내의 각종 ‘출판 행위’를 아우르는 역할을 한다. 교수나 학생들이 책을 내거나 저서를 출간할 경우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출판 형태(house-style)를 제시하며, 내용이나 편집 방향에 관해 조언하는 것은 물론, 디자인과 사진 배열, 제작, 인쇄 등에 이르는 세세한 공정의 진행까지 도맡는다.

연례보고서나 대외 홍보물, 비공식 뉴스레터, 학생 또는 교수들의 학술동인지 등의 출판은 기본이다. 대학 안팎의 독자들을 위한 출판물을 내고, ‘과학주간’ 등 각종 거국적 학술행사를 주관하는가 하면, 대학의 인터넷 사이트를 책임, 운영하는 일까지 하고 있다.

옥스퍼드대학교 출판부 역시 마찬가지다. 이곳 출판부는 심지어 출판에 필요한 디자이너나 사진 전문가, 인쇄 시스템, 프리랜서 등을 알선, 추천하기까지 한다. 일종의 ‘대학 출판 매니저’라 할 만큼 광범위한 재량권을 행사하는 셈이다. 또 널리 알려져 있듯이 워싱턴에 별도의 지부를 두고 독자적인 해외 출판을 벌이는 등 국제적인 ‘출판 메이저’로도 손색이 없다.

민간 베이스 대학출판법인 PUF, ‘공공에 바탕한 권위 자랑’

이들은 양질의 출판물을 내기 위한 투명하고 엄격한 자체 검증 시스템으로도 유명하다. 순수한 대학 내 출판부 개념과는 좀 다를 수도 있으나, 프랑스의 대학출판 전문 법인 PUF(Le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는 그 모형으로 흔히 거론되는 곳이다. PUF는 대학인들의 학술과 교양부문 출판에 있어선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수익성과 학문적 당위 사이에서 갈등하는 대학출판의 대안으로 참고할 만한 출판 조직”이란 게 관련 전문가들의 견해다.

8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PUF는 특정한 대학 소속이 아니다. 곁으로 봐선 민간 출판사와 유사하나, 대학문화를 아끼는 독지가들과 철학·역사·문학 분야의 전문 출판인들에 의해 처음 세워졌던 만큼 철저한 ‘공익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그래서 개별 대학 차원이 아니라, 프랑스 국내 대학출판물을 두루 섭렵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취재활동과 함께 파리3대학교에서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취득했던 언론인 성 모씨는 “파리 1·3·4·5 대학 등의 경우 최고의 성적을 받은 논문만을 대상으로 PUF 출판에 앞서 다시 엄격한 심사를 벌인다”고 공공성에 바탕한 권위를 인정하기도 했다. PUF는 분야별 학자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편집위원회를 두고, 우수 논문을 꼼꼼히 점검한 후 만장일치 조건으로 출판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출간된 책이나 자료는 국제적 ‘상품’으로서 경쟁력도 뛰어나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학술이나 교양서적을 불문, PUF의 출판물은 국내외적으로 널리 인기를 끌면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프랑스 국내의 강력한 판매망(Union Distribution)과 벨기에, 스위스, 캐나다 등 국제적 유통망도 큰 힘을 발휘한다. 1941년 출간 이래 43개 국어로 번역, 1억6,000만 부나 팔리며 국내에도 널리 소개된 전설적인 문고판 『끄세저Que sais-je』나, 세계적인 논문 작성의 ‘전범典範’ 역할을 하는 포켓판 『까드리지Quadrige』등은 그런 배경에 힘입어 탄생된 명저들이다.

학문적 성취와 수익성 '양수결장' 사례도

많은 전문가들은 “이들은 학문적 성과의 매개체의 역할뿐 아니라 ‘경영마인드’의 구현에도 성공한 모델”이라고 평가한다. 대학 불문학부에 겸임교수로 출강하고 있는 출판인 오 모씨는 “PUF는 ‘자유로운 지적 탐구와 경제적 동기 위에 설립됐음’을 정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2000년엔 이같은 취지에 더욱 충실하기 위해 ‘리브리Libris’나 ‘플라마리옹Flammarion’, ‘퐁다시옹 보드메Fondation Bodmer’ 등 유수한 출판재벌과 보험회사 등을 대거 주주로 참여시키기도 했다.

학문적 목적과 함께 수익성을 추구하는 모습은 특히 미국 명문대학들의 경우 더욱 두드러진 현상이다. 예일대출판부는 설립 취지 첫머리에 “탁월한 학문적 성취를 뛰어난 편집과 디자인, 출판 그리고 마케팅과 결합함으로써 대학과 그 밖의 세계에 걸쳐 지적 영역을 확장하고 열정을 고취시키는 작업을 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혁신적이며 기업가적 정신으로 무장, 끊임없이 그 지평을 넓힘으로써 대학출판 본연의 이념을 극대화하고 구체화하는 노력을 계속” 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

95년 역사와 함께 수많은 도서출간 실적을 자랑하는 예일대출판부는 고도의 학술서적은 물론, 이같은 정신에 입각한 희대의 대중적 베스트셀러를 내놓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풀리처상을 받은 데이빗 리즈먼의 『고독한 군중』이나,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여로Long Day's Journey Into Night』, 그리고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뉴욕시백과 Encyclopedia of New York City』등이 모두 이곳 ‘작품’이다. 이와 함께 세계 전자출판 분야에서 최초로 CD-ROM 멀티미디어인 『페세스Perseus』를 펴내는 등 경영마인드에도 충실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예일대출판부 런던 지부는 ‘지부’ 라기보단 ‘글로벌 출판사’로 손색 없는 규모와 내용을 자랑한다. 지난 1961년 ‘마케팅 개념’을 토대로 설립된 이곳은 독자적이고 다양한 출판기획과 활동을 벌이고 있다. 예일대학 당국 스스로 “미국의 대학출판부로선 유일하게 종합 출판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갖춘 출판사를 유럽에 설치했다”며 자랑해 마지 않는 곳이다.

출판의 질이나 내용면에서도 세계 정상급이다. 그동안 미술사와 건축 분야에서 활발한 출판작업을 벌여 토대를 쌓았으며, 최근엔 무역사와 정치학, 음악, 종교, 문학, 현대사 등 다양한 영역으로 넓혀가고 있다. 이를 출판물은 영국의 권위 있는 각종 상을 받기도 하고, 언론으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베스트셀러에 등극하기도 했다.

일본 문부성, 학술서적 구매 파격지원

이에 비해 일본이나 중국 등 아시아권의 경우 구미 선진국에 비해 대학출판부의 위상이나 역할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다만 교대나 와세다대 출판부의 경우 ‘학문적 정보 전달’ 이란 원론적 임무에 충실했던 편이라는 평가다. 한국대학출판부협회 박방배 사무국장은 “물론 예외도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봐서 상업적 목적의 출판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고 했다.

박 국장에 따르면 도쿄대 출판부는 연중 100여 종의 신간을 펴내는 가운데, 각기 500권 이하의 부수가 그 중 70퍼센트를 차지한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일본 문부성의 전폭적인 지원이다. 연간 3억 엔 정도의 예산을 책정, 전국 주요 도서관으로 하여금 10퍼센트 가량 할인된 가격으로 이를 사들이도록 하는 등 학술출판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는 “우리의 학술도서진흥정책과도 비슷하지만 지원의 규모나 성격면에선 크게 앞선 수준”이란 게 박 국장의 얘기다.

이에 비해 중국은 사회주의 투유의 대학출판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중·고교 교과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책이란 책은 모조리 대학출판부가 도맡는 등 획일적인 시스템이 통용되는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그 규모 또한 방대하기 짜이 없다. 청화대출판부의 경우 지상 8층, 지하 2층 규모의 건물을 통째로 쓰며, 직원 숫자만 무려 6,000~7,000명에 달할 정도다. 그러나 “이는 사회주의 관행이 지배하는 국가에서나 가능한, 매우 특수한 모습일 뿐”이란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

출판저널 편집부